

인간의 감정이입과 로 봇의 감정이입

영화, 'BLADE RUNNER' (RIDLEY SCOTT, 1982)를 통해 생각하기.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명교

Blade Runner에서 휴먼 / 안드로이드

외계인의 일반적 모양:

- 인간과 다르게 생겼다.
- 인간과 통화수단이 다르다.

안드로이드(Android) ≅ 휴먼

- 정의의 근원: 인간형 로봇(humanoid robot)에서 발전
- 정의: 인간처럼 보이고 행동하는 인간형 로봇 혹은 합성 유기체. 특히 표면이 살을 가지고 있는 듯해서 로봇처럼 보이지 않는다.
- 어원: [Greek](#) root $\alpha\upsilon\delta\rho-$, "man" (male, as opposed to anthrop-, human being) and the suffix [-oid](#), "having the form or likeness"

영화에서, 로봇의 반란의 동기

반란

After the bloody mutiny by a Nexus 6 combat team in an Off-world colony, Replicants were declared illegal on earth – under penalty of death.

Special police squads – Blade Runner Units – had orders to shoot to kill, upon detection, any trespassing Replicant.

This was not called execution.

It was called retirement.

퇴역 (retirement)의 판별 기준

Replicant(로봇)는 감정이입을 못한다.

Void -Kampff Test

주인공 Deccard는 휴먼인가, 안드로이드인가?

The Voigt-Kampff test is designed to demonstrate levels of empathy, the one quality which it is believed the androids cannot fake. However, the novel makes it quite clear that intelligence can find out a way of simulating empathy, and that people who cannot empathize are not necessarily replicants. On several occasions the author points up Deccard's own inability to empathize with the replicants. – Kevin McCarron, recited in Dani Cavallaro, *Cyberpunk and Cyberculture: Science Fiction and the Work of William Gibson*, New Brunswick, New Jersey: The Athlone Press, 2001, p.13

문제는 감정이입인가?

데커드에 대한 관객의 의심은 초점이 빛나간 것으로 보인다.

데커드에게 걸린 혐의는 그에게 감정이입이 극히 결여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관점을 바꾸어 ‘안드로이드는 정말 감정이입을 못하는가?’로 바꾸어보자.

가장 두드러진 의심: 왜 ‘로이 베티’는 데커드를 살려주는가?

[시험의 예 1](#)

[시험의 예 2](#)

안드로이드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내력.

개발의 이유: 순수 용도에서 탈피

- 영화에서 제시된 이유: 좀더 창의적인 작업.
- 소설에서 제시된 순수용도의 기본적 문제점: 열역학 제2법칙에 종속 → 과부하 발생(Asimov의 문제제기)

자발적 진화 시스템의 장착으로

감정을 지속시킬 장치를 부착.(감정의 기억화)

- 감정의 기억화는 감정들의 비교를 유발

AI의 진짜 경험이 감정이입의 단계로 넘어간다.

데커드 vs 안드로이드

데커드와 안드로이드 모두 감정이입을 한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데커드에게는 안드로이드와는 다른 게 있다.

장면

데커드 vs 안드로이드

데커드와 안드로이드 모두 감정이입을 한다.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데커드에게는 안드로이드와는 다른 게 있다.

의미:

- 안드로이드에게 감정의 교류가 수평적이라면
- 인간에게 그것은 ‘위계관계’의 확인으로 쉽게 변한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왜 인간 관객들은 문제의 본질을 놓친 걸까?

주인공(인간)은 선한 존재다, 라는 고정관념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좋아한다는 것을 인간의 생명존중 사상으로 착각.

- 이질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의 반작용으로 이해 가능.
- 인간 외의 존재:
 - 동화시키고: 같은 인간
 - 복종시킨다: 인간 내부의 서열Hierarchy

인간은 권력행사를 사랑으로 착각한다.

인간이 스스로에게 씌우는 이데올로기: 이를테면, ‘명명’:

- ‘퇴역retirement’, Voigt-Kampff test

실질적인 주제

인간 문명은 스스로의 악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 Why?

그 악은 인간이 문명을 건설한 바로 그 알고리즘 자체로부터 발생한다.

즉 인간문명은 인간문명에 의해서 파괴될 것이다.

관객에게 열리는 생각: 문명의 알고리즘을 바꾸어야 한다.

- 진화를 진화시켜야 한다는 것.

- 반란의 불가피성

반란을 처음 행한 자는 누구인가? : 안드로이드

소설에서도 암시는 됨: 반란의 잠재성

‘내가 처치할 세 번째 안드로이드가 저기 있군. 이게 루바 루프트야. 맡은 배역이 요구하는 감정을 생각하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군, 아무리 생기 넘치고 활기차며 출중한 외모라해도, 도주한 안드로이드는 진실을 말할 수 없는 법이니까. 자기 정체에 대해선 말이야.’ 무대에서 루바 루프트는 노래했고 릭은 자신이 루바 루프트의 빼어난 음성에 놀라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일급 오페라 가수에 비하더라도 빠지지 않을 목소리였고, 릭이 갖고 있는 구시대 테이프 컬렉션의 유명 가수에 버금가는 수준이었다. ‘로젠 연합에서 물건 하나는 잘 만들었군.’ 릭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영원 불변의 법칙을 자각했다. 지금 여기서 듣고 보고 있는 바로 이것이 파괴자인 릭을 여기로 불러온 것이다. 루바 루프트의 성능이 뛰어날수록, 성악적인 재능이 탁월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내가 필요한 거야.

안드로이드의 성능이 표준 이하였다면, 데레인 연합에서 만든 구형 q-40 같은 안드로이드만 있었더라면, 안드로이드로 인한 문제도 없을 것이며 나처럼 뛰어난 현상 사냥꾼이 있을 필요도 없어. 언제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하는 것이 좋겠어. 리허설이 끝나고 그녀가 분장실로 들어간 다음이면 되겠군.’

고정관념으로부터의 탈피

감정이입의 두 가지 버전에 대한 깨달음

- 최종학인 : 로이 베티의 구출

생명에 대한 깨달음:

- 살아있는 생명도 죽는다.
 - Like Tears in the rain
- 죽음으로부터 보면 휴먼/안드로이드의 차이가 없다.
- 유니콘의 꿈(유일성에 대한 욕망)도 복제된 것이다.

마지막 장면에서의 ‘되풀이’의 기능

사랑 장면의 되풀이

- 거친 사랑의 요구에서 부드러운 물음으로

Gaff의 기능

- 앞 장면:
 - **Gaff** : You've done a man's job, sir. I guess you're through, huh?
 - **Deckard** : Finished.
 - [*Gaff throws Deckard his gun*]
 - **Gaff** : It's too bad she won't live! But then again, who does?
- 마지막 장면: 회상
 - It's too bad she won't live! But then again, who does?

두 장면의 차이

앞 장면: 누구나 죽는다.

회상 장면: 누구나 오래 살 수 있다.

전기양 테마

인간은 살아 있는 양을 꿈꾼다.

- 안드로이드 형상에 대한 단서
- 생명과 장난감의 차이.
- 인간이 자신과 닮은 존재를 선호하는 것은 생명 사랑에 근거하는가?

안드로이드가 꿈을 꾸는 경우의 수

- 안드로이드는 꿈을 꾸지 않는다. ← 안드로이드는 감정이 없다.
-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을 꿈꾼다. ← 안드로이드는 감정이입이 없다.
- 안드로이드는 살아있는 양을 꿈꾼다. ← 안드로이드는 감정이입을 한다.



‘감정이입’에 있어서의 두 종의 차이

휴먼: 인간의 감정이입은 동족에 대한 공감으로부터 출발했고, 동족의 공감을 확대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안드로이드: 안드로이드의 감정이입은 (명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 인류와 같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 따라서 동족에 대한 공감에 기초해 있지 않고, 다른 존재에 대한 공감에서 출발한다.
 - 근거 첫 단계: 안드로이드는 논리만을 따진다. (동족이든 아니든 문제가 아니다.)
 - 근거 두 번째: 안드로이드가 감정을 가지고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동족인가, 아닌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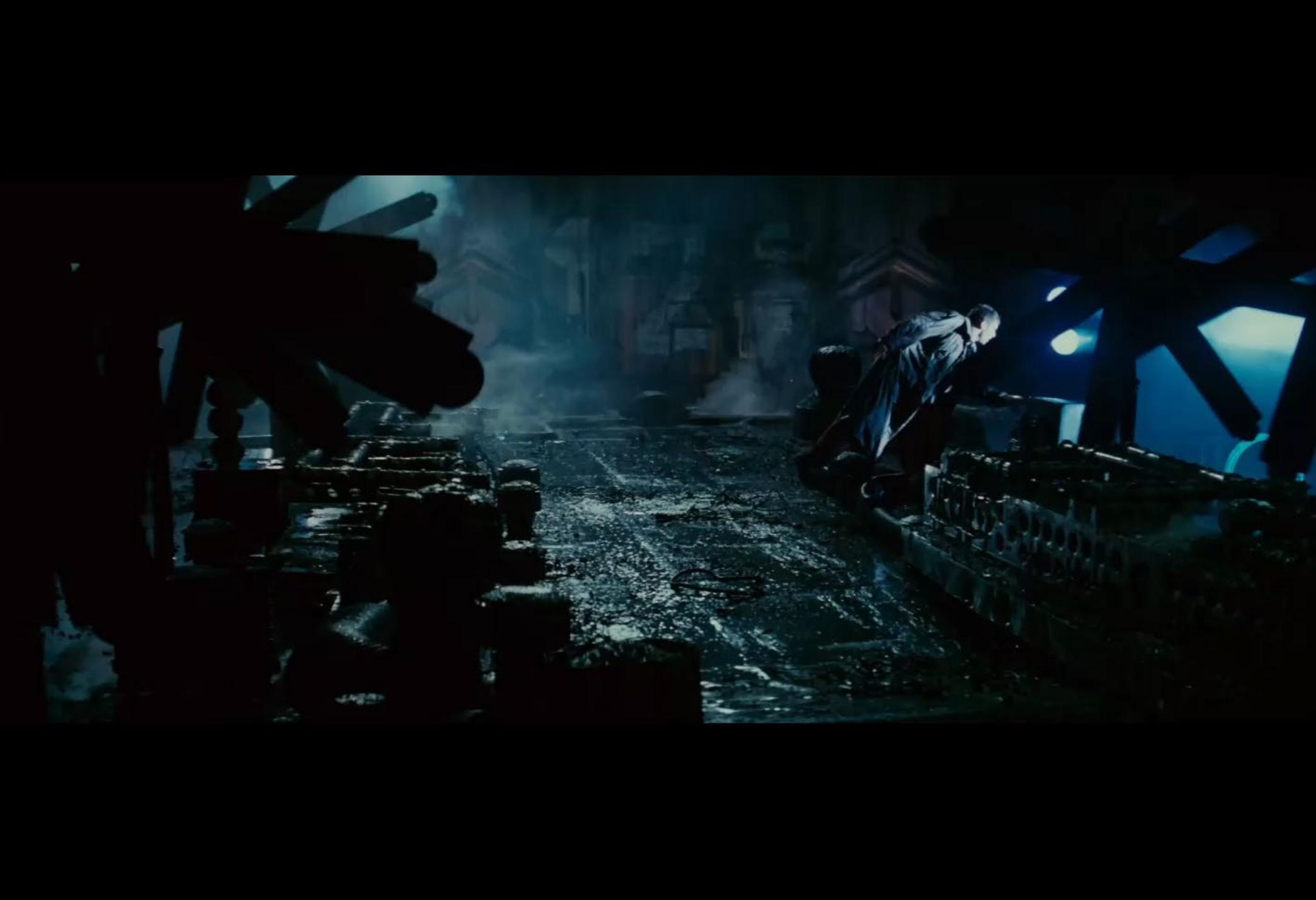


Replicant (F) Des: PRIS
NEXUS 6 N6FAB21416
Incept Date: 14 FEB., 2016
Func: Military / Leisure
Phys: LEV. A Ment: LEV. B

'프리스, 용도: 군대/여가'









안드로이드의 차이
감정이입에 관한 휴먼과





부드러운 사랑



Gaffi의 말 1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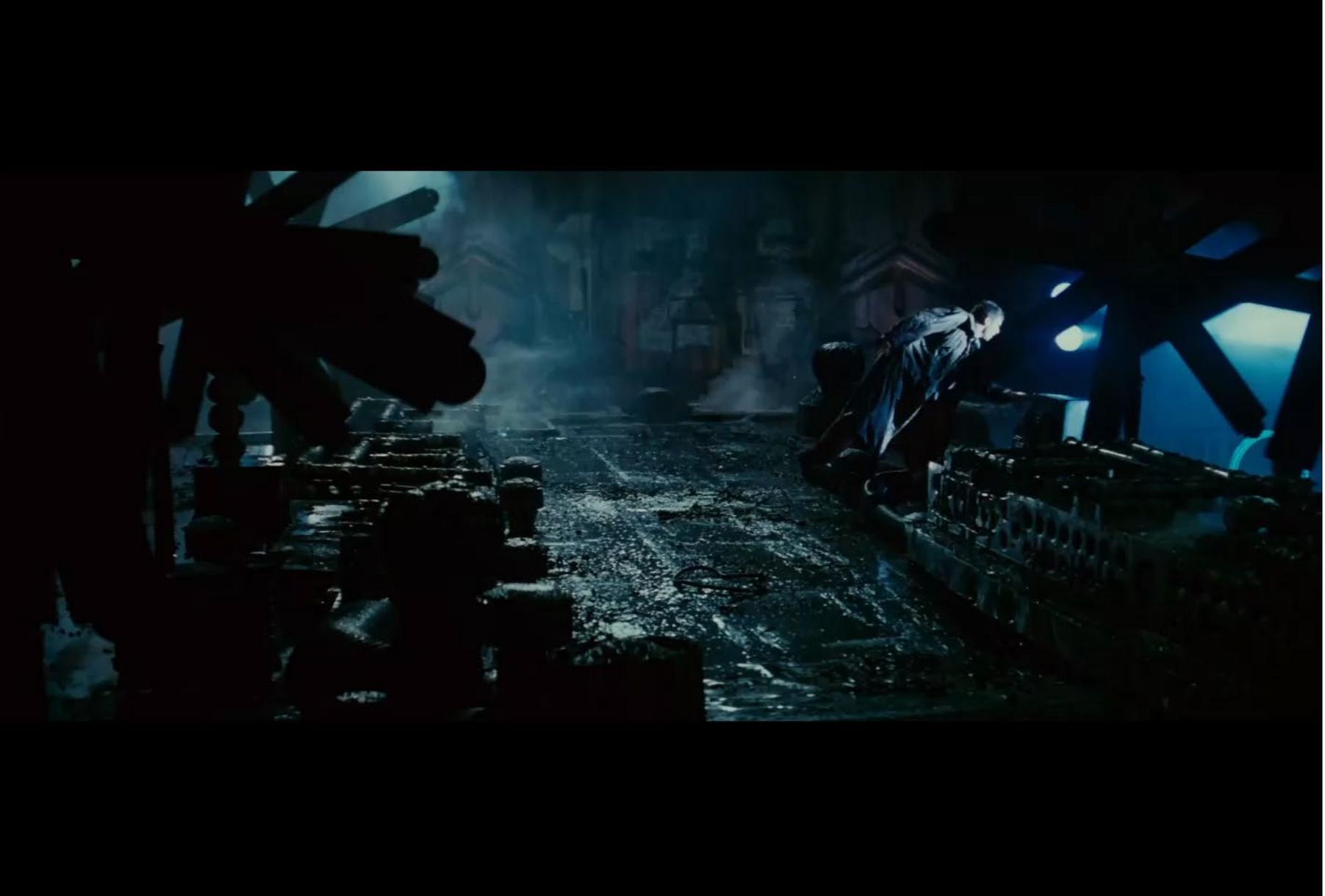


Gaffni Mep 2 (1997)





Android's experience



The Quick And The Curious

